1t 트럭 '봉고' 불황 타고 씽씽~

움직이는 포장마차…생계형車 대표
7월까지 광주 1339·전남 1679대
전남 최다 판매 1위·광주 3위
전국 3만7850대로 내수 5위 올라

파란색 트럭이 아파트 진입로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신선한 야채·과일 팝니다'라는 마이크 소리가 울려퍼진다. 화물칸 덮개를 젖히면 온갖 야채와 과일 등 식재료가 가득하다.

대형마트를 찾는 게 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풍경에서 빠지지 않는 게 '봉고' 트럭이다.

개인 용달을 비롯, 떡볶이·순대·오뎅, 통닭·핫도그·튀김을 파는 소규모 이동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생계형 차종의 대표주자다.

특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늘어날 때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민 재산목록 1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2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봉고Ⅲ 트럭으로 모두 3018대가 판매됐다. 1 t 봉고 Ⅲ 트럭은 지난달까지 전남에서 모두 1679대가 팔려 최다 판매 차량에 올랐고 광주에서도 1339대가 팔려 판매량 3위에 올랐다.

전국 성적도 비슷해 지난달까지 3만 5510대(지난해 같은기간 판매량 3만 7850대)가 팔려 카니발(4만4836대), 쏘렌토(4만1894대) 다음으로 기아차 국내 판매 3위를 차지했다.

수십여종에 달하는 승용차를 제치고 트럭으로는 드물게 국내차 판매 5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기아차가 1t봉고 트럭을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1980년. 이듬해 전두환 정권의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로 1t트럭과 승합차 등만 만들어야 했던 위기 상황에서 기아차를 살려낸 일등 공신이 바로 봉고 트럭이다.

'봉고신화'로 대박을 터트린 봉고 승합차는 단종됐지만 1t 봉고 트럭은 소하리 공장에서 지난 2000년 광주공장으로 생산라인이 옮겨진 뒤 현재까지 '움직이는 포장마차', '생계형 차량의 대표주자'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특히 지난 2004년 생산라인 합리화 사업을 거쳐 3공장을 봉고트럭 전문공장으로 바꾸고 봉고 트럭의 명성을 잇는 3세대 봉고 트럭인 '봉고Ⅲ'를 내놓으면서 국내 소형 상용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1t 봉고 트럭의 경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늘어날 때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탓에 서민 경제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봉고 트럭 판매량의 경우 ▲6만1863대(2015년) ▲5만6783대(2016년) ▲6만2184대(2017년)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아차는 1537대가 판매된 더 뉴 쏘렌토였다. 이어 더 뉴 카니발(1382대), 봉고Ⅲ, 더 뉴 K5(934대), 올 뉴 모닝(865대)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봉고 다음으로 더 뉴 쏘렌토(1191대), 더 뉴 카니발(1007대), 올 뉴 모닝(893대), 더 뉴 K5(740대) 등으로 판매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車 무상점검

11월까지 출고 8년 이상 노후차 대상

현대·기아차가 노후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20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노후 차량 보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출고한 지 8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서비스거점에서 '노후 차량 고객안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개 오토큐에서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출고한 지 8년이 넘은 승용차·레저용 차량(RV)·소형 상용차가 대상으로, 현대·기아차는 애초 차량 구매 후 8년간 연간 1회 무상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에는 8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무상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무상점검에서는 기본 점검 외에도 ▲오일 및 냉각수 누유 여부 ▲엔진룸 내 오염 및 이물질 ▲연료, 오일 계통 연결부 누유 여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전기장치 임의설치 및 개조에 따른 차량 상태 등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

자동차 화재의 경우 차량 노후화나 각종 오일류·냉각수 부족 등 차량 관리 부실, 교통사고, 방화, 운전자 부주의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화재의 주 요인인 엔진 과열·과부하의 경우 자동차 결함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냉각수와 오일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따라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엔진오일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1년 내 한 번은 교환 ▲엔진룸 내부 정기점검과 청소 ▲냉각수량 점검 ▲배선·연료·점화장치 수시 점검 ▲엔진 관련 경고등과 온도 게이지 관찰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을 운행할 때도 ▲고속도로 1~2시간 주행 뒤 10분 이상 엔진을 끄고 식힐 것 ▲주차는 실외보다 실내에 할 것 ▲블랙박스 등 상시전원 코드는 장기주차 때 분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차량 내 인화성·폭발성 물질 방치 금지 ▲주·정차 때 배기관 주변에 종이, 오일 등 연소하기 쉬운 물질 없는지 확인 등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BMW 리콜 돌입…부품 대란 우려

2011~2016産 11만여대 연내 마무리

BMW코리아가 20일 리콜(결함 시정)에 들어갔다. BMW코리아는 이날부터 전국의 61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결함 시정 조치를 개시했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317대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는 리콜 일정을 앞당겨 연내 모든 리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리콜 규모가 10만6000여대로 수입차 리콜로는 사상 최대이다 보니 원활한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BMW코리아는 리콜 개시와 별개로 안전진단 서비스는 당분간 계속 운영한다. /연합뉴스

현대차·제네시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7관왕

현대차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7개의 상을 수상했다.

현대차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가 5개, 제네시스 브랜드가 2개의 상을 각각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를 수상했다.

수상 제품과 분야는 ▲미니버스 '쏠라티' 무빙호텔(최우수상, 사운드 디자인 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관 파빌리온(본상 2개, 브랜드 경험 설치물 및 사운드 디자인 분야) ▲파이어니어스 필름(본상, 필름&애니메이션 분야) ▲세이프티 홀로그램(본상,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